

7/2/17

설교 제목: 새 언약을 맺은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와 실천적 권면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히브리서 10:26-39

- (히 10:26)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 (히 10:27)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 (히 10:28)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 (히 10:29)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절관주** 출 24:8, 속 9:11
- (히 10:30)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 (히 10:31)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 (히 10:32)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 (히 10:33)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절관주** 빌 1:7
- (히 10:34)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앎이라
- (히 10:35)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 (히 10:36)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 (히 10:37)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 (히 10:38)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 (히 10:39)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는 크게 교리에 대해 설명한 부분과 성도들을 향해 실천적인 권면을 한 부분으로 나뉩니다.

교리에 대한 설명은 1:1-10:18 까지이고 성도들에게 실천적 권면을 한 부분은 10:19-13:25 까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동족에게 고립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 자신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 잘한 일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갈등하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고 배교에 대한 경고와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 굳세고 풍성히 소유하고 실천하는 성도가 될 것을 권면합니다.

본문은 실천적인 권면을 한 부분으로 배교에 대한 경고와 권면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교에 대한 경고로 짐짓 죄를 범한 것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히 10:26)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짐짓 죄를 범한 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 KJV 으로 이 구절을 보겠습니다.

<sup>26</sup>For if we sin wilfully after that we have received the knowledge of the truth, there remaineth no more sacrifice for sins,

짐짓은 deliberately, voluntarily, willingly, wilfully 즉 자신의 의지로, 자발적으로, 기꺼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짐짓 죄를 범한 즉’이란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를 받아 보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곧 진리를 충분히 알고

있는 자들이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배교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자는 당시 이미 일어나고 있고 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너희가'가 아닌 '우리가'라는 대명사를 사용해서 자기 자신까지도 포함시켜 아주 조심스럽게 경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심판에 대한 경고가 구원받은 성도들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는 이곳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6:4-6 에도 나옵니다.

(히 6:4)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히 6:5)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히 6:6)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경험하여 구원의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그 진리를 떠난 사람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하게 욕을 보이는 죄를 짓는 것으로 기자는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남겨진 제사는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런 자들은 영원히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고 오로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무서운 불 심판" 만이 남겨져 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본문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 10:27)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히 10:28)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히 10:29)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구약 시대에 율법은 실수로 지은 죄와 고의적으로 지은 죄를 분명하게 구별하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하였을 경우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두세 증인에 의해 확인한 후 반드시  
사형시켜야 하였습니다(민 35 장).

그러니 이 귀절의 의미는 인간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어긴 죄도 이같이  
엄중하였다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실제로 오셔서 주신 복음 진리를 저버린 죄에 대한 형벌은  
얼마나 더 크고 엄중하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옛 언약 보다 탁월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새 언약을 어기고 배반한 자들에게 미칠 심판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히 10:30)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히 10:31)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 32:39)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낮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기자는 이렇게 경고한 후 담대함과 인내를 가지고 신실한 믿음을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먼저 담대한 신앙을 가질 것을 주문합니다.

(히 10:32)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히 10:33)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히 10:34)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앎이라

(히 10:35)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빛을 받은 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복음의 진리를 받아드린 후에 엄청나게 힘든 고난을 겪었습니다.

동족으로부터 비방과 핍박을 받았고, 조롱거리가 되었고, 감옥에 가기도 했고, 감옥에 갇힌 믿음의  
동지들을 돕다가 재산까지 다 빼앗기를 힘든 상황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기업이 있음을 믿고 하늘의 상을 바라 보았기에  
서로 위로하며 소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들을 향해 기자는 이들의 신앙을 칭찬하며 동시에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붙잡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환란을 겪게 될 서머나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계 2:10)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다음으로 인내할 것을 주문합니다.

(히 10:36)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믿음은 인내를 통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라고 한 로마서 5:3-4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계 14: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린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더욱 더 믿음과 인내가 요구됩니다.

기자는 구약 말씀을 인용하여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히 10:37)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히 10:38)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 10:39)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잠시 잠깐 후'라는 표현은 인간 편에서의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성경 마지막 장인 요한 계시록 22 장에서 주님은 3 번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 22:7)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계 22:1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계 22:20)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만 아직 오시지 않는 것은 당신이 택한 백성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자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사 26:20)과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합 2:3-4)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 고난의 순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며(학 2:6), 확실하기에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며 담대하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구약을 인용한 것은 히브리서를 받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미 구약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있으므로 그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상기시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습니다.

인용한 구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 26:20) 내 백성이 같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사 26:21)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잤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 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합 2:3)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합 2:4)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학 2:6)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학 2:7)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모하는 것이

(학 2:8)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 2:9)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 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셔서 당신이 한 약속을 지키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소망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을 지킨 자들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소망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담대하게 붙들고 인내하여 믿음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헛되게 만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